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과 시사점

황 선 준*

차 례

1. 서론
2. 학교 아동 돌봄(Skolbarnomsorg)의 여러 형태
 - 2.1 교육적 돌봄(Pedagogisk omsorg)
 - 2.2 개방된 방과 후 활동(Öppen fritidsverksamhet)
 - 2.3 방과 후 활동(Fritidshem)
3. 방과 후 활동(Fritidshem)의 역사적 변천과 법적 근거
4. 방과 후 활동의 비용
5. 방과 후 활동의 이용률
6. 방과 후 활동의 질: 실내외 환경 및 그룹의 크기와 성향
7. 교사의 역량
8. 자유시간의 개념과 프로그램
9. 결론 및 시사점
 - 9.1 결 론
 - 9.2 시사점

1. 서론

이 글은 스웨덴에서 정규 교과시간 외에 학생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다룬다. 통칭 학교 아동 돌봄(Skolbarnomsorg)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맞벌이부부와 공부를 하는 부부를 위해 발전된 제도이다. 특히 6-9세의 어린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제도는 유아교육제도(Förskola: 1-5세 어린이를 위한 유아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교육을 보완하고 아이들의 사회적 발달과 취미활동에 크게 기여한다. 유급육아휴직제도, 유아교육제도, 아동보조금제도와 더불어 학교 아동 돌봄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부모들에게 직장생활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의 육아는 대체로 여성의 몫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스웨덴의 이러한 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양성평등에 필수적인 제도다. 스웨덴이 세계적인 양성평등 국가가 된 이면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스웨덴의 학교 아동 돌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탐구적 측면에서 기술한 것이다. 학교 아동 돌봄의 여러 형태, 역사적 변천과 법적 근거, 이용률과 비용, 질적 문제, 자유시간의 개념과 그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프로그램 그리고 끝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학교 아동 돌봄(Skolbarnomsorg)의 여러 형태

스웨덴의 ‘학교 아동 돌봄’은 교육법, 교육과정의 목적과 요구의 기준을 토대로 운영, 통제, 질 관리가 되고 있다. 교육법에 의하면 모든 콤문(지방정부)은 6세에서 12/13세까지의 학교아동 중 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함으로서 정규 수업시간 외에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아동 또는 가정

사정에 의해 아동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아동에 한해 의무적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 후에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 아동 돌봄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며, ‘방과 후 활동’ (Fritidshem), ‘개방된 방과 후 활동’ (Öppen fritidsverksamhet) 그리고 ‘교육적 돌봄’ (Pedagogisk omsorg)이라고 부른다. 뒤에서부터 그 개념과 이용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자.

2.1 교육적 돌봄(Pedagogisk omsorg)

교육적 돌봄은 이전엔 가정 돌봄(Familjdaghem) 이라고 불렀으나, 2009년부터 교육적 돌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대체로 어느 한 가정이 방과 후에 자신의 자녀를 돌봄과 동시에 다른 아동도 돌봐주는 여러 형태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콤문으로부터 돌봐주는 아동들의 숫자에 따라 일정한 급료를 받는다. 돌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콤문은 아동을 돌보기에 적합한 장소인가, 또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적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1980년대 중반 15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으나, 현재는 무시할 정도로 적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 이 글에선 제외한다.

2.2 개방된 방과 후 활동(Öppen fritidsverksamhet)

교육법에 의하면 콤문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10세에서 12세 학교아동들에게는 이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나이의 학생들에 한해 정규 방과 후 활동(Fritidshem)이 아닌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다. 이 나이의 아동들은 대체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스스로 지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일부 아동들은 여가 선용을 위해 외부에서 제공해 주는 체계적 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여부도

체크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는 이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이 비교적 잘 보급되어 있었으나, 90년대 초의 경제위기로 인한 비용절감 대책으로 많은 콤포문은 이 업무를 중단했고, 오늘날 290개의 콤포문 중 이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콤포문은 70여 개뿐이다.

2005년에 있는 어느 부모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는 10-12세 사이의 아동은 이 나이의 전체 아동의 약 7%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이 나이의 아동이 약 10%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나이의 대부분의 아동은 방과 후에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사업을 평가한 스웨덴 국립교육청은 비용절감이라는 단기적 안목으로 많은 학생들이 혼자 지내게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Skolverket, 2010a)

이 개방된 방과 후 활동도 그 목적에 있어서는 정규 방과 후 활동과 같다. 즉 이 나이의 아동들도 의미 있는 자유시간과 활동이 필요하고 가정과 학교 밖에서 다른 아동들과 성인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통계도 없고, 지방정부에 따라 장소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이 개방된 방과 후 활동도 교육적 돌봄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 제외한다.

2.3 방과 후 활동(Fritidshem)

이 정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6-9세)들의 이용률은 매우 높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콤포문은 학생수요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의 끝난 후엔 이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방과 후 활동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우선 개념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Fritidshem을 위에서 개방된 방과 후 활동(Öppen fritidsverksamhet)과 구분하기 위해 정규 방과 후 활동이라 언급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자유시간의 집 또는 가정' 이라고 번역

할 수 있다. 집이라고 번역할 때도 건축물로서의 집이라기보다는 가정이란 의미에서의 집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의미에서의 집이란 단어를 공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통이 있다. 'Folkhem'(국민의 집 또는 인민의 집)이란 개념은 이미 한국에도 알려져 있다. 유아학교(Förskola)의 명칭도 이전엔 Daghem이라 불렀다. 직역하면 '낮의 집'으로, 낮에 부모들이 직장을 다닐 때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것같이 돌봐준다는 뜻이다. 즉 hem(집, 가정)이란 개념을 사용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공공 업무를 집에서 하는 것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함으로써 양질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 방과 후 활동을 영미 나라들에서처럼 After school activity라 부르지 않고, 자유시간의 집이라 부른 것도 정규 교육과정 외의 자유 시간을 집에서 해주는 것같이 아동이 참여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취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한다. (뒤에서 이 개념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국제적 개념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방과 후 활동으로 의역해서 사용한다.

3. 방과 후 활동(Fritidshem)의 역사적 변천과 법적 근거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담론은 간단히 얘기하면, 학교수업이 없는 시간에 어떻게 학교아동들을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현재의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업무는 1880년대 말 스톡홀름에서 연 '노동의 집'(Arbetsstugan)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노동의 집은 많은 부모들이 가정 밖에서 일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체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을 위한 것으로 점심이 제공되고, 간단한 수공업적 기술을 배워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거칠어 지지 않게 도덕, 순화 교육을 했다.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이 노동의 집이 부르주아 사회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잘 훈련된 노동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스톡홀름에는 이러한 노동의 집이 15개 정도 있었고, 1500명의 아동을 돌봤다고 한다. (Ursberg)

노동의 집은 1940년대 중반 ‘오후의 집’(Eftermiddagshem)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매일 열렸다. 노동의 집이 수공업적 기술전수와 열심히 일하는 도덕을 가르치는데 가치를 부여했다면, 오후의 집은 아동들에게 휴식과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을 제공하고, 자유 시간을 이용한 취미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숙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가정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1950년대에 들며 초등학교 어린 아동들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컸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은 가정은 보모(Barnflicka)를 두어 스스로 해결해 전체 아동 수에 비해 오후의 집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당연히 보모를 둘 수 있는 가정은 한정돼 있어 많은 아동들은 외부의 돌봄 없이 혼자 지냈다.

1960년대의 경제발전에 의해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کم문이 아동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며 시설을 확장해 나갔다. 이 때 오늘날 사용하는 ‘자유시간의 집’(Fritidshem)이란 개념도 정착되었다. 이 자유시간의 집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열렸고, 목적 또한 오후의 집과 같이 가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었다. 교육학적인 내용이 더욱 첨가되어 휴식 외에 자연을 체험하고, 운동과 놀이를 통해 레크리에이션을 체험하도록 했다. (Haglund 2004)

종합하면 현재의 방과 후 활동은 사회분야에서 시작되어 발전해 왔고, 노동의 집에서는 양육과 교육이 핵심적 내용이었다. 오후의 집에선 사회적 발전과 배움에 초점을 뒤 사회교육학 (socialpedagogik) 분야로 이동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완전히 교육학 분야로 옮겨 방과 후 활동은 사회성 제고와 배움에 초점을 두었다. (Rohlin 2011, Skolverket 2011)

이렇게 발전되어 온 방과 후 활동은 교육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교육법 14조는 전적으로 방과 후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

급하고 있다. 방과 후 활동은 정규 교육을 보완하며, 아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배움을 자극함과 동시에 의미 있는 자유시간과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방과 후 활동은 다방면의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모든 콤포넌트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할 경우, 또는 가정상황에 의해 아동 스스로가 필요할 경우,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방과 후 활동은 아동이 13세가 되는 봄학기까지 제공해야 하며, 아동이 10세가 되는 가을학기부터는 방과 후 활동 대신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방과 후 활동은 학교정규과정 이후와 방학 중에 제공하나 저녁이나 밤, 주말이나 연휴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교육법은 방과 후 활동이 아동의 취미와 요구에서 출발하고, 아동의 서로 다른 여건에 맞춰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과 후 활동에 종사하는 교사나 방과 후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및 방과 후 활동의 내용은 학교와 연계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Skollagen 14 조)

위에서 정규교육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부연해서 설명하면,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완한다. 하나는 시간적 보완으로 학교정규과정이 끝나거나 방학 중 보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측면에서 아동들에게 학교 정규과정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의 체험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방과 후 활동이 아동의 전인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과 후 활동도 학교가 추구하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왕따, 폭력,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아동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 양성평등, 인권을 제고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아동 개개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책임감 강한 시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Läroplan för det obligatoriska skolväsendet, förskoleklassen och fritidshemmet)

4. 방과 후 활동의 비용

방과 후 활동의 이용료는 아주 저렴하다. 이용료 계산방법은 가정의 전체 수익과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다. 현재 모든 콤포문(지방정부)은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이용료 상한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콤포문인 경우, 가계의 전체수익이 42,000 kr (크라운, 한국 돈으로 월 700여 만 원)이 넘으면 상한선제도를 적용한다고 한다. 스웨덴에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월 수익이 거의 모든 가계가 42,000 kr이 넘는다. 이 말은 거의 모든 가정이 상한선제도에 적용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 상한선제도 외에 한 가정 내에서 몇 명의 자녀가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는가도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 가정에서의 방과 후 활동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첫째 자녀: 가계 전체 수익의 2% 또는 최대 월 840 kr
- 나) 둘째 자녀: 가계 전체 수익의 1% 또는 최대 월 420 kr
- 다) 셋째 자녀: 가계 전체 수익의 1% 또는 최대 월 420 kr
- 라) 넷째 자녀부터는 무료

즉 어느 한 가정이 두 명의 자녀를 방과 후 활동에 보내면 월 1260 kr 이상을 지방정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가계의 월 소득이 25 000 kr일 경우 750 (500+250 kr) kr을 지불하고, 부부가 실업자일 경우엔 방과 후 활동비용이 무료다. 어느 가계가 가계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익을 계산하기가 힘들 경우는 이 상한선제도의 최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cf. Skolverket, 2007b) 이런 형태로 부모가 내는 비용은 전체 방과 후 활동비용의 17% 정도가 된다. 나머지 83%는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충당된다. 이것은 스웨덴 방과 후 활동이 무상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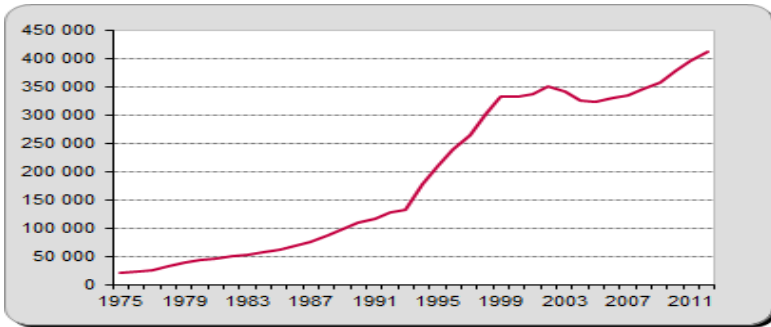
5. 방과 후 활동의 이용률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2012년 현재 전국에는 4,316개의 방과 후 활동 학교가 있다. 이의 약 90%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수학교, 유아학교학급 (Förskoleklass -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6세 아동들을 위한 일 년짜리 학교), 북부지방의 샘족 학교와 연계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방과 후 활동이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아동 돌봄의 한 형태인 '가정 돌봄'(Familjdaghem - 2009년부터 교육적 돌봄으로 명칭이 바뀜)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정 돌봄은 1975년에 방과 후 활동보다 훨씬 많은 7만 여명의 아동이 이용했고, 1980년대 중반엔 15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이 형태의 돌봄을 선택해 절정을 이루었으나, 그 후 차츰 감소되고, 1990년대 초에는 방과 후 활동과 역전되어 현재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용률이 낮다. 1990년대 초 방과 후 활동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바로 가정돌봄형태에 아이들을 맡기던 학부모들이 더욱 체계적인 방과 후 활동에 아이를 맡기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은 학부모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것을 선호한데 따른 발전 형태라 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 수는 411,300 여명이고 이는 6-12세 전체 아동의 56%에 달한다.

<표 1>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아동수의 변천 197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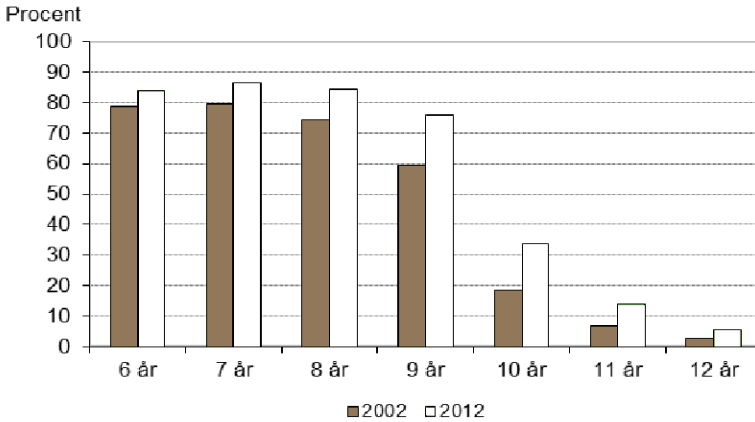


자료: Skolverket 2012

그러나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6-9세에 속한다. 즉 초등학교 1-4학년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다. 현재 이 나이 아동들의 83%가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10세 아동들의 경우엔 30% 조금 넘게, 11세 아동들은 10% 남짓, 12세 아동은 5-6% 정도가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10-12세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부모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도 혼자 하교하여 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나이의 아동들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원하면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0-12세 아동들의 약 7%가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나이에서 방과 후 활동 이용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0년 전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한 6-9세 아동은 73%로 10년 동안 10%가 늘어났다.

<표 2> 2002년과 2012년 사이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나이에 따른 비율의 비교



자료: Skolverket 2012

6. 방과 후 활동의 질: 실내외 환경 및 그룹의 크기와 성향

스웨덴에서 유아학교나 방과 후 활동의 질을 논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질을 언급 한다: 구조적 질, 과정적 질 그리고 결과의 질. 1) 구조적 질은 활동의 외적 조건, 조직 및 자원 (resources)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법과 같이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 교사의 교육정도, 아동그룹의 성향, 실내외 여건, 시설, 예산 등이다. 2) 과정적인 질은 방과 후 활동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내용에 대한 질로 교사와 아동과의 교감, 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호응도, 자료의 활용, 활동의 내용과 환경 등이다. 3) 결과의 질은 아동들이 뭘 배웠는지, 숙련 정도가 어떤지 등을 재는 질로 그룹의 크기, 교사 한 명당 아동 수 등이 아주 중요하다(Sjöberg, Persson). 당연히 구조적 질의 수준이 높아야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질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구조적 질이 좋다고 자동적으로 과정과 결과

에 있어 좋은 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구조적 질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과 후 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 실내외장소도 중요하고, 내부 시설 및 교육 자료들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많은 아동들이 뛰어 노는 실내엔 소음장치가 아동들의 정서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내외환경이나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교사이고,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 및 물질적 여건 외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역량, 아동 그룹의 크기, 교사 한 명당 아동 수, 각 그룹에 속하는 아동들의 성향 등이다. 즉 위 세 가지로 분류한 모든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분석하여 아동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그룹을 구성해야 된다. 특히 아동들의 나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예, 장애아동)의 비율,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율, 아동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성해야 된다고 스웨덴 국립교육청은 각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Skolverket, 2007a)

이렇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교육법(Skollagen 14조)과 교육과정에서 아동그룹의 크기가 적정 수준이어야 하고, 방과 후 활동이 아동 개개인의 필요에 부응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나아가 방과 후 활동이 아동들의 사회화에 아주 중요하고, 아동은 아동이 속하는 그룹 속에서 발전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다른 아동들과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룹이 크면, 아동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그룹이 너무 크면 교사가 아동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동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하여 아동이 좌절감을 느끼거나, 위협적인 행태를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룹의 크기와 그룹에 속하는 아동들의 성향이 그룹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도표는 1980-2012년까지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의 그룹의 크기에

대한 통계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개념은 몇 명의 교사팀이 돌보는 아이들의 크기로 각 방과 후 활동 학교가 자체로 통계청에 보고하는 그 숫자를 의미한다.

<표 3> 1980-2012년 사이의 방과 후 활동의 그룹의 크기 등

År	Elever per grupp	Elever per anställd	Elever per årsarbetare ¹
1980	17,8		7,4
1995	23,7		11,4
2003	30,1	11,1	18,2
2004	31,0	10,8	18,2
2005	30,6	10,9	18,6
2006	31,7	11,1	18,9
2007	33,5	11,1	19,5
2008	34,0	11,8	20,5
2009	36,0	12,0	20,9
2010	38,1	12,3	21,5
2011	38,8	12,3	20,4
2012	40,1	12,4	20,1

첫째: 그룹의 아동 수, 둘째: 교사 한 명당 아동 수, 셋째: 전체 교사를 fulltime으로 환산했을 때 교사 한 명당 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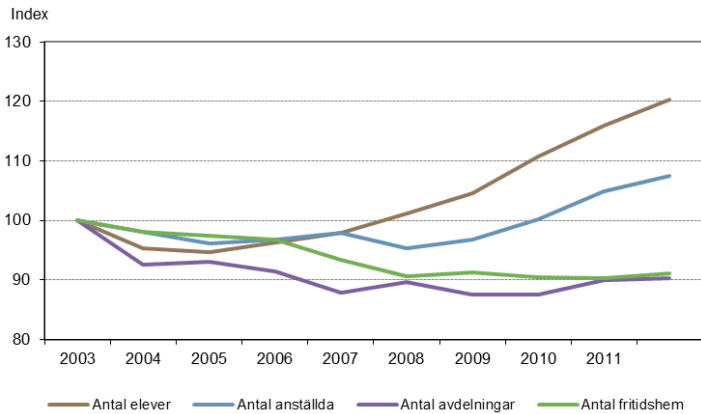
자료: Skolverket 2012

2012년 현재 한 그룹의 평균 아동 수는 40.1명이다. 1980년대 초 18명이 채 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지난 30여 년 동안 그룹의 크기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에 나와 있지 않지만,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10년 동안 교사 한 명당 아동 수는 7.5에서 10.9명으로 증가했고, 2012년 현재 12.4명으로 증가했다. 2002-2004년 사이 잠시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2004년 이후 다시 계속해서 증가했다.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수는 20% 증가했지만, 교사 수는 단지 7%만 증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2012년 현재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수는 33,000 여명으로 2011년의 32,200명에 비해 약 2% 증가한 것이다. 이 교사 수를 풀타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약 5%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된 교사의 숫자만 늘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근무량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풀타임으로 환산했을 때 2011년에는 19,400명이었으나, 일 년 후에 20,500명이었다. 그래서 위 통계에서 보듯이 풀타임교사 한 명당 아동 수를 보면, 2011년에 20.4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20.1명으로 줄어 조금 호전되었다.

<표 4> 2003년을 기점으로 2012년까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수, 교사 수, 그룹 수, 방과후학교수의 변화



갈색: 아동 수, 청색: 교사 수, 보라: 그룹 수, 초록: 방과 후 활동 학교 수
 자료: Skolverket 2012

그룹의 크기가 커진 이유는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3년을 기점으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수는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방과 후 활동 학교 수와 그룹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2010년 이후에야 줄어드는 게 멈췄다. 이와 같은 발전은 앞에서 개방된 방과 후 활동을 언급할 때 잠시 언급했듯이 1990년대 초의 경제위기 이후에 많은 콤포넌이 비용절감으로 방과 후 활동학교 및 그룹을 통폐합하거나, 늘어나는 아동을 기존의 그룹에 포함시켜 들본 결과이다. 콤포넌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인 국립교육청은 이렇게 그룹이 크면 교육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매년 콤포넌에 대해 비판했지만 (Skolverkets lägesbedömning 2001-) 개선이 잘 되고 있지 않다.

7. 교사의 역량

위에서 언급했듯이 방과 후 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데는 물질적 여건(실내의 환경, 시설, 교육자료 등)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룹의 크기와 그룹에 속하는 아동들의 성향이다. 그러나 방과 후 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역량(Competence)이다. 방과 후 활동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이의 아동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배우는가를 아는 것이고, 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교사들은 개개 아동들의 필요와 요구뿐만 아니라, 그룹의 필요와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그룹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아동들이 그룹 내에서 어떻게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가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Skolverket, 2007a)

물론 관련 분야에서의 공식적인 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의 문제점에서 출발하는 학습과 연수이다. 콤포문은 교사에게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교육청은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각 아동과 그룹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따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평가와 연구 등을 학습하고, 이를 자신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업무를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Skolverket, 2007a)

방과 후 활동에 종사하는 교사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 대체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시간교사(fritidspedagog), 유아교육교사(förskollärarexamen), 초중등교사(lärarexamen), 자유 시간 리더교육 교사(fritidsledarutbildning). 앞의 세 부류는 대학 교육을 받은 교사이고, 넷째는 고등학교수준의 교육이나 일부 대학교육을 수료했으나 졸업장을 받지 못한 교사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돌봄(social omsorg) 분야나 교육학 분야에

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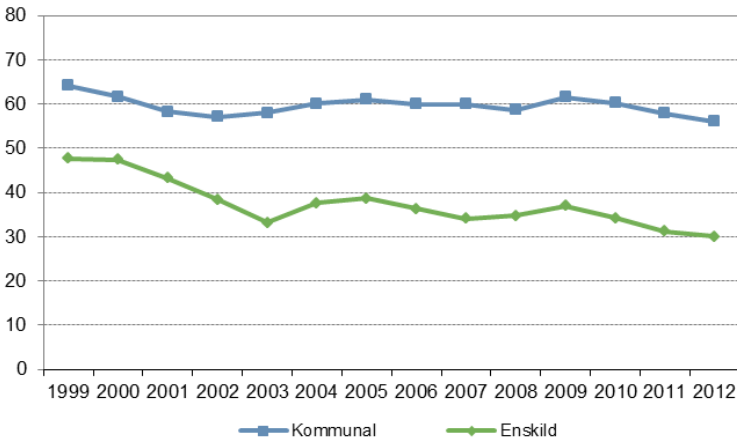
2012년 현재 교육 형태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교사들의 비율을 보면 자유 시간 교사(27%), 유아교육교사(15.8%), 초중등교사(10.9%), 사회적 돌봄분야 교사(10.2%), 교육학분야교사(5.3%), 자유 시간 리더교육 교사(4%) 그리고 기타(27%)이다.

2012년 현재 방과 후 활동에 종사하는 교사 중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는 약 54%이다. 1년 전만해도 56%이던 것이 2%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3-4년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했다.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낮은 북부지방 콤포문의 경우,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의 비율이 75%나 되지만, 대도시나 대도시 주변의 콤포문의 경우 그 비율이 38-39% 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과 대도시사이에서의 방과 후 활동 교사의 교육정도의 큰 차이는 우선 방과 후 교사 기피현상이다. 방과 후 교사가 인기 직업이 못되어 지방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 대학교육을 받은 방과 후 교사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왜 지방 방과 후 교사의 교육 정도는 그래도 높은 이유는 지방 출신의 교사들이 도시에서 대학교육을 마친 후에 다시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 교사직을 맡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옮기지 않고 평생 출신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사는 경향이 있다.

방과 후 활동의 경영주체가 누구인가도 교사들의 교육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6-9세 아동의 83-84% 정도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8-9%는 자율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75-76%는 공립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 자율인가 공립인가의 차이는 학교나 유아학교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경영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자율과 공립에 상관없이 똑같이 상한선제도를 적용하며, 나머지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경영자는 공립일 경우 콤포문(지방정부), 자율일 경우에는 개인, 재단, 조합, 기업 등 다양하다. 학교나 유아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율 방과 후 활동도 비용절감을 위해 급료가 높은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를 채용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교사 한 명당 아동 수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자율 방과 후 활동의 그룹의 크기가 공립 방과 후 활동보다 크고, 교사 한 명당 아동수도 많다. 즉 질을 규정하는 많은 변수에서 자율 방과 후 활동이 공립 방과 후 활동보다 나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의 대학교육 정도도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공립과 자율 방과 후 활동 사이에 차이가 크다.

<표 5> 공립과 자율 방과 후 활동에서의 교사들의 대학교육의 비율(%), 1999-2012



청색: 공립 방과 후 활동 초록: 자율 방과 후 활동
자료: Skolverket 2012

8. 자유시간의 개념과 프로그램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을 직역하면 '자유시간의 집 또는 가정'(Fritidshem)이라고 했다. 이는 자유시간이란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의 내용과 활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스웨덴에서 논의 되어온 '자유시간'이란 개념을 정리하며, 두 개의 콤문의 방과 후 활동을 직접보기로 한다.

교육법과 교육과정에서 방과 후 활동은 ”아동에게 의미 있는 자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방과 후 활동의 사업의 형태나 교육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의미 있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의미 있다고 결정하는가 - 아동이 아니면 교사가, 모든 아동이 똑같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아동마다 취향과 요구하는 것이 달라 방과 후 활동의 내용이 다양해야 하는가 등 많은 질문을 야기한다. 또 제공한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아동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제공하는 내용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참여하고 결정할 여지가 있는가, 제공되는 활동에 대해 아동들은 의무적으로 아니면 원하면 참여할 것인가, 등.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래도 '자유 시간'이다.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방과 후 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 시간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은 이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아마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전국의 방과 후 활동이 획일적이 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즉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맡겨 두고자 한 현명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의미로 '자유 시간'이란 개념을 해석하고 사용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

- 1) 자유시간이란 개념이 개개 아동의 자유 시간에 대한 경험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어느 정도 자유 시간에 대해 자신이 맘대로 할 수 있는가로 해석.
- 2) 자유시간이란 개념은 의무적인 일이 끝났을 때 남는 시간의 의미로 해석.
- 3) 개인이 자신의 자유 시간에 참여하는 활동에 방점을 두어 활동시간으로 해석.
- 4) 자유시간이 단지 재미있는 것을 넘어 유익한 활동시간으로 해석. 이

경우 뭔가 배운다는 의미가 강하고 그래서 자유시간의 활동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유익해야 한다고 해석. (Haglund 2009, Skolverket 2011)

만약 방과 후 활동을 첫째와 같이 개인의 체험으로 이해하면 개개 아동이 방과 후 활동에서 뭘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의 해석과 같이 남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방과 후 활동은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셋째와 같이 활동의 시간으로 보면 아동들은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것이고, 자신을 위해 참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이 아동이 방과 후 활동의 모든 활동이나 내용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교사는 아동이 한편으론 아동들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한편으론 아동들과 교사들 사이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와 같이 방과 후 활동이 유익한 활동으로 이해되면 교사들의 교육 정도와 역량, 나아가 교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해진다. 즉 교사가 아동들의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여러 형태의 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없었던 다른 형태의 취미도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스웨덴 국립교육청이 보는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시각은 이 네 번째 해석에 가장 가깝다 (Haglund 2011, Skolverket 2007a, Skolverket 2011).

이와 같은 자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를 보기 위해 스톡홀름 근교의 두 개의 콤포문 - Danderydskommun과 Österåkerskommun의 방과 후 활동을 홈페이지와 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했다 (Danderydskommun, 2010, Österåkerskommun 2012,).

두 콤포문 모두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로 아동이 방과 후 활동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중요하며, 이 때 각 그룹의 아동들이 그룹별로 모여 교사와 함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한다고 한다. 방과 후 활동의 그룹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학년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 모임이 끝나면 교사들의 지도하에 아동들은 여러 가지 활동 중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활동은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몇 명이 앉아 하는 게임, 독서, 미술, 음악, 연극, 레고쌓기, 만들기, 바느질, 도자기 빚기 등이 있고 실외에서 축구나 아스팔트에서 하는 하키 (Innebandy) 등이 있다. 어떤 날은 시내로 나가 지방의회, 도서관, 박물관 등을 참관하고,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인 스키나 스케이트를 가까운 숲 속에서나 호수에서 즐기기도 한다.

교사들은 아동이 뭘 원하는 지에 대해 경청하고,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한다고 한다. 물론 조용한 구석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쉬고 싶은 아동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만약에 숙제를 하고 싶은 아동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한다. 학교 내에 동산이 있으면 동산에서 자유롭게 놀거나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한다. 특히 교사의 주도 없이 자유롭게 노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동들 스스로 놀이를 즉흥적으로 찾아 함께 노는 것을 장려한다고 한다. 이렇게 자유롭게 놀고 스스로 단체 놀이를 찾아 하는 것이 창의력 신장에도 아주 좋다는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은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극을 주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배워 나가게 한다고 한다. 물론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두 콤문이 자신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방과 후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학교의 방과 후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위의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그룹의 크기가 커지고, 잘 교육된 교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봤다. 실제로 교사의 지도 없이 마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통제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위 둘 중 한 콤문은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보고서에서 교사들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고 한다. 또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가 국가적 수준에서 58%인데 반해, 자신의 콤문은 23% 밖에 되지 않는다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한다. (Österåkerskommun 2012)

9. 결론 및 시사점

9.1 결 론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역사는 깊다. 부모들의 사회적 생산 활동이 활발하기 시작한 1880년대부터 도입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각적, 제도적 변화를 겪어왔다. 방과 후 활동은 부모들의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방과 후 활동은 학교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들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른 아동들과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인적 교육의 한 방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방과 후 활동에 드는 부모의 비용은 아주 적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를 방과 후 활동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가정은 거의 없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다는 것은 비용의 대다수를 국가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용률도 아주 높아 초등학교의 저학년의 경우 83-84%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의 경제적 위기로 각 지방정부의 재정은 어렵게 되었고, 이 재정적 어려움을 지방정부는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대응한 것이 역력하다. 그룹의 크기가 1990년대 초 이후로 지속적으로 커졌고,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비율도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파 정권에 의한 1990년대 초의 학교선택제의 도입으로 방과 후 활동에서도 자율 방과 후 활동의 설립이 가능했고, 이와 같은 자율 방과 후 활동은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변수 - 그룹의 크기, 교사의 역량, 시설 등에 공립 방과 후 활동보다 좋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 방과 후 활동의 비율이 7-8%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라도 방과 후 활동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동시에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만 1-5세의 유아학교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제도적 정립을 통해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와 아동에게 평등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과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도와 양성평등을 도모할 수 있다.

방과 후 활동은 학교교육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과 다른 내용과 활동으로 아동들에게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정규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 사이의 자유로운 놀이와 활동,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민주주의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을 보는 관점은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방과 후 활동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을 돕는 아동에 초점을 둔 평등 관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양성평등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국가가 해결한다고 하는 강한 국가 또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이 우리나라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9.2 시사점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콤문)와의 협력모델이다. 이 업무에 대해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의회가 승인한 교육법과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 콤문이 방과 후 활동의 시행(Implementation)을 책임지는 역할분담이 뚜렷하다.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 스웨덴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학교와 방과 후 활동학교가 정규교육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한다.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은 부모들의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부모의 취업활동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을 병립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부터는 저학년의 경우(초등학교 1,2학년) 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방과 후 5시까지 무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환영할 일이다.

둘째, 교육법에 근거한 방과 후 활동(Care+Education)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흥미 있는 여가활동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교와 방과 후 활동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방과 후 활동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 하에 방과 후 학교 법제도로 방과 후 활동에 드는 부모의 비용은 아주 적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를 방과 후 활동에 참여 시키지 못하는 가정은 거의 없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다는 것은 비용의 대다수를 국가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용률도 아주 높아 초등학교의 저학년의 경우 83-84%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도 하루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 행,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체계적인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규교육과정 교사의 업무경감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학교 교사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전담교사이다. 방과 후 활동 교사는 방과 후 활동을 전담하는 것 외에 학교와의 연계 정도에 따라 오전에 정규수업의 보조교사로도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전 정규과정 교사가 오후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병행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데 비해 북유럽은 방과 후 활동의 전담교사가 따로 있어 오전 정규교사의 업무 부담까지 덜어주어 정규교육과정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취미, 적성, 재능을 계발하고 살리는 특기적성교육 중심의 방과 후 활동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에서는 교과학습의 연장이 아니라 특기적성 학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다른 내용과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정규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 사이의 자유로운 놀이와 활동,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방과 후 활동은 학교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들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른 아동들과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인적 교육의 한 방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Danderydskommun. 2010. *Kultur- och fritidsplan för Danderyd 2010-2014*
- Haglund, Björn. 2004. "Traditioner i möte. En kvalitativ studie av fritidspedagogers arbete med samlingar i skolan". *Göteborg Studies in Educational Sciences*. 137
- Haglund, Björn. 2009. "Fritid som diskurs och innehåll: En problematisering av verksamheten vid afterschool programs och fritidshem". *Pedagogisk forskning i Sverige*. årg 14 nr 1
- Haglund, Björn. 2011. "Fritidshemmet – en arena för omsorg och lärande". *Lära, leva, utvecklas*. Stockholm Lärarförbundet
- Skolfs. 2009. *Läroplan för det obligatoriska skolväsendet, förskoleklassen och fritidshemmet Lpo 94*. Stockholm: Fritzes kundservice.
- Persson, Sven. 2010. "Lärandets var och när i den institutionaliserade barndomens kontext, Perspektiv på barndom och barns lärande". *Skolverkets kunskapsöversikt*.
- Rohlin, Malin. 2011. *Fritidspedagogik och lärande, i A. S. Pihlgren (red) Fritidshemmet*. Lund: Studenlitteratur
- Sjöberg, Elisabet. 2008. "Genomlysning av Stockholms kommunala fritidshem skolår F-3". *Våren 2008*. Stockholms stad Skollagen
- Skolverket. 2007a. "Allmänna råd och kommentarer". *Kvalitet i fritidshem*
- Skolverket. 2007b. "Fem år med maxtaxa". *Skolverkets rapport 294*.
- Skolverket. 2010a. "Kartläggning av skolbarnomsorg för 10-12 åringar 2009". *Skolverkets rapport 342*.
- Skolverket. 2010b. "Utveckling pågår: Om kvalitetsarbete i fritidshem".

Skolverkets stödmaterial.

Skolverket. 2011. “Fritidshemmet – lärande i samspel med skolan”.

Forskning för skolan.

Skolverket. 2012. “Elever och personal i fritidshem hösten 2012”.

Skolverkets lägesbedömning 2010.

Ursberg, Maria. 1996. *Det möjliga mötet. En studie av fritidspedagogers förhållningssätt i samspel med barngrupper inom skolbarnomsorgen.* Malmö: Lärarhögskolan

Österåkerskommun. 2012. *Slutrapport: Projekt Kvalitet i fritidshem.*

<Abstract>

Study on Swedish 'Fritidshem' (After school activity)

Hwang , Sun Joon

Swedish Fritidshem is an institution for students after their school. The Fritidshem can give the possibility for parents to work and take care of their kids. Specifically, it is an important institution for women who want to work in the labour market. The Fritidshem has a long history, adopted at the end of 1880s in Sweden. To take part in the Fritidshem is not expensive: Parents pay for just 17% of the total cost for the Fritidshem, the rest of 83% is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budget. Most of the students, 83-84% of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 in the Fritidshem. The quality of the Fritidshem was quite high, but it has been down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early 1990s.

Implications to Koreans : The swedish state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and child-care of its people. The Fritidshem is stated clearly in the Education Act and the curriculum. Thus, the Fritidshem can stably upgrade with the support of the state. The teachers of Fritidshem are permanently employed by the local government. They can even support teaching in class and decrease the workload of classroom teachers. The Fritidshem is as important as that it is not a continuum of classwork but functions like stimulating students in the diverse activities, arousing their curiosity, helping them settle their self-esteem and identit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e program like the Swedish Fritidshem is needed to

develop considering that the more women in Korea can have possibility to work in the labour market and at the same time take care of their children.

Key Words: Swedish 'Fritidshem', After school activity, Low costs and high quality, Parents' economic activities and child-care, Hobby activities, Gender equity

성명: 황선준

소속: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소파로 46)

전화번호: 02-3111201

e-mail: sunjoon.hwang@gmail.com

논문접수일: 2013.6.9

논문심사일: 2013. 7. 24

게재확정일: 2013. 8. 25